태초의 두 나무

(창2:4~17)

7.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8.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9.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5.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6.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태초의 두 나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태초의 두 나무'
여러분! 강릉이 두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식당마다 두부찌개를 파는 곳이 참 많아요.
제가 여기 와서 보게 되는 것은 워낙 두부와 국물을 좋아해서 두부찌개 식당을 가는데 아무래도 단골집이 생깁니다. 제가 가는 단골집은 밭이 아주 넓게 있고 그 한 가운데에 푸른색이 나는 기와를 얹은 집인데 벽이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펌프가 있는 우물가가 있고 그냥 가정집을 식당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벽이 진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모서리가 다 둥글둥글한데 한글무늬 벽지를 붙였고 대들보의 나무 윤곽이 다 드러나 있고… 하여간 저는 그곳이 참 좋았어요.
들어가서 한쪽 끝으로 가면 창호지로 만든 들창문이 있는데, 들창문을 열면 정원이 보입니다. 조그마한 정원이 보이는데 그 정원에 너무 볼품없는 사과나무가 하나 서 있었어요.
웅장하게 잘 큰 나무가 아니고 제 목까지 정도의 작은 사과나무인데 희한한 거예요.
식사를 기다리면서 보는데 갓난 아이 머리통만한 사과들이 대 여섯 개가 주렁주렁 맺혀있는 겁니다. 붉고 노란빛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과가 얼마나 탐스러운지요.

그런 나무를 아파트 베란다에 몇 그루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갓난아기 머리만한 사과들이 몇 개씩만 열려도 맛은 둘째 치고 그 기쁨이 특별하지요.

이 기쁨을 동화로 표현한 것이 황금 알을 낳는 거위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황금 알 하나면 됐지.
뭘 더 바래요? 그런 거위 하나 있으면.
뱃속에 있는 황금 알을 한꺼번에 얻겠다고 거위를 죽이는 미련한 짓은 저는 절대로 하지 않을 만큼은 철이 든 것 같아요.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동화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63빌딩 같은 빌딩 원하지도 않아요. 3~4층만 되면 되겠어요. 그리고 명동 한 복판에 있는 게 아니라도 좋고, 우리 동네 한 복판에 3~4층짜리 빌딩이 있으면 아, 그 월세가 또박또박 나올 때에 요거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맛을 모를 겁니다.

에덴동산이 뭡니까?
열매 따먹는 곳이었어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각종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곳이 에덴동산이었습니다.
맺히는 열매 따먹는 그 재미, 빌딩에서 나오는 월세라는 열매를 따먹는 그 재미,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는 나무에서 열리는 황금 알이라는 열매…
열매 따먹는 재미가 풍부한 곳이 에덴이었다는 것을 아세요?
그런데 타락해서 결국은 이 열매들을 다 잃었는데, 그 열매들 중에 최고의 열매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생명나무 열매였습니다.
또 희한한 열매도 있어요. 절대 따먹으면 안 되는 망하는 나무의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나무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나무의 열매를 요한계시록에서 붉은 용이라고 하고 옛 뱀이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 열매를 따먹고 에덴을 잃었는데, 에덴을 잃으면서 함께 상실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는 무엇이고 선악과나무는 무엇이냐?
이게 무엇인지는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실된 것을 회복시켜주시기 위해서 세워주신 나무가 십자가나무입니다.
선악과나무의 열매는 따 먹으면 죽는데, 십자가나무 열매인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의 열매는 날마다 따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선악과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나타난 독성을 중화시키고 해독할 뿐만 아

니라, 십자가나무 열매 하나를 따먹는데 잃었던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같이 먹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빌딩 나무에서 월세 열매 따먹기를 바랄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 연금 부어서 다달이 들어오는 연금 열매를 따먹을 것을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나무 열매 따먹으면서 선악과나무 열매의 독을 해독하고, 잃어버렸던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그 재미가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무엇이고 선악과나무의 열매가 무엇이냐는 것을 오늘 본문을 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 또 창조 이야기가 나와요.
셋째 날에 산천초목이 다 만들어졌는데, 본문에 보니 또 사람이 땅을 경작할 수 없어서 땅에 채소가 나지 않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건 창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삶에서 느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경작하지 않으면 잡초만 무성하게 되는 것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 발견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조이야기와 에덴의 이야기를 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에덴동산이 있었던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창조의 순간과 에덴동산 자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그것을 기록으로 남길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계시를 통해 보여주시는데,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지만 사진을 찍듯이 정밀묘사를 하듯이 그렇게 성령을 통해 가르쳐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과 '나'라는 인간이 관계를 가질 때에 꼭 알아둬야 될 태초의 사건 속에 숨어있는 의미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르쳐주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창조이야기만 해도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이 32권이고, 그 중에 6만 5천개의 항목이 있고, 4천 4백만 개의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그것으로도 창조이야기를 다 표현해 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에덴도 마찬가지죠. 에덴이 역사적으로 있었지만 지금 말하는 선악과나무라든지 생명나무라는 것은 상징성을 띄고, 에덴에 있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데 역점을 두면서 상징적인 언어들로 에덴을 표한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적 언어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묘사되고 있는 그대로가 에덴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생명나무는 무엇이고, 선악과나무는 무엇이냐?
생명나무에 대해서 해석을 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캘빈과 종교개혁가인 루터의 해석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루터의 생명나무에 대한 해석은 문자 그대로 따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캘빈은 성례전적 나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잖아요?
그게 성례전적 나무라는 것인데 생명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아담이 늘 기억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례전적 나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해석이 다 타당한 일면이 있는데, 그냥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진행되어 오는 과정 중에서 있었던 의미들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합니다.

어떤 의미의 맥락을 찾아낼 수 있느냐?
인간의 창조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고 하십니다.
생령(生靈)이 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나 새나 백합화나 나무들처럼 살아있는 육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마음 상태를 겨냥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간의 창조는 인간의 살아있는 육체를 겨냥해서 인간 창조를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이야기가 합쳐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과 연관되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주체(主體)되심은 주인 되심이라는 이야기이고, 그 주체되심과 주체성(主體性)의 표현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주체되심은 그 안에 판단력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소원하시고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동하십니다. 이게 주체되심인데 이 주체되심이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주체성이 받아들여졌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구분이 다 하나의 맥락으로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나무가 연결이 되고, 그것이 하

나님의 주체와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주체되심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음과 생명나무가 하나로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주체성이 표현되는 일과 인간이 흙으로 지음 받은 육체를 입고 있는 일과 선악과나무가 하나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본문에서 나오는 의미의 맥락 안에서 저절로 뜻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뭘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당신의 속을 아들 하나님으로,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채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 거예요.
요17:22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아버지께 하신 기도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같이 나를 믿는 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음 받은 것은 마음이 비어있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비어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관계를 통해서 그 속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빈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가시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차면 어떻게 됩니까?
에덴이 되는 겁니다. 기쁨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차면서 만족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바로 생명나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손을 내 밀어서 따먹어야 돼요. 나무의 열매이니까 안 따먹으면 못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서 지속적으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제에 우리 인간이 마음으로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왜 참여합니까?
예수님이 창조의 이유시고, 목적이시고,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자리에 우리 마음이 서게 됨으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그 교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교제에 참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생명나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에덴동산이 말씀드린 대로 기쁨의 동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에덴동산이 기쁨의 동산이 된 이유는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고 거기서 발원되는 네 강의 온갖 보석과 귀중한 지하자원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에덴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날마다 따먹는 생명나무의 열매 때문에 에덴이 된 것이에요.
지금 내가 돈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돈을 따서 먹을 생각을 하지 말고, 빌딩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원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마음 안으로 하나님을 따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생명나무였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기뻐지는 상태를 생명나무로 상징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불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막연하게 영생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영생을 숫자적으로 물리적인 차원에서 끝이 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영생에는 질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질적인 의미가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이 포함되어 있어서 참되게 하하 웃고 만족하는 거였어요.
그 반대가 뭡니까?
웃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공허해지는 거예요. 기뻤는데 공허해지는 겁니다.
그 반대가 끝까지 기쁜 것이지요.
이게 생명나무인데 불확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나무도 오해가 많아요.
어떤 오해가 있느냐? 따먹으면 죽으리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을 사람들이 행위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문화적 위임의 측면에서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스리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위임되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그런 다스림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것도 행위언약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좀 피상적이고 너무 표피적인 이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나무 자체가 갖는 의미가 간과되어 있습니다.
왜 선악과나무라고 이름을 지었고, 왜 그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죽음도 루터가 말하는 생명나무에서 말하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먹어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3장에 보면 육체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선악과나무의 열매를 따 먹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그 벌 때문에 벌 받아서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행위언약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인데 신학자들이 행위언약이라고 갖다 붙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야기는, 선악과 자체에 의미가 있어서 그 선악과라는 열매를 따먹게 되면 우리 존재가 멸망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존재가 망가져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가 죽은 것은 아니나 인간의 인간다움이 말살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그 강 어느 부분에는 '이 부분을 넘어서면 되돌아오기 힘듭니다.'라는 표지판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넘어갔습니다. 그걸 넘어갔다는 사실 때문에 정부에서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벌을 줍니까? 그런 게 아니죠. 넘어가면 죽는다는 이야기는 넘어갔을 때 강물에 휩싸여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죠.
선악과나무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따로 벌을 주셔서 죽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그것만으로 존재가 말살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인간다움의 존재가 없어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선악과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를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상태로 빠집니다.
이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주체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체와 주체성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를 들면 신입 말단 사원들은 회장님이 연초에 중역들을 모아놓고 발표하신 운영방침을 부장님에게서 과장님에게서 또 대리님에게 들어서 받아들입니다. 회장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인 거예요. 회장님의 생각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나 회장님과는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역들, 그중에서도 계열사 사장들이라든지 비서실장 같은 사람들은 회장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회장님과 1:1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면 사장들의 아내까지 다 불러서 파티를 하고 그 때에는 회사 이야기 안하잖아요. 심지어는 아이들까지 다 불러서 파티를 하며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데, 말단 신입사원들은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차이라는 거예요.

백합화와 인간이 다른 것은 백합화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주체성이 그 안으로 받아들여져

있지만, 인간은 비로소 정복과 다스림을 통해 거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백합화는 말단 사원처럼 주체성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주체를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주체를 받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게 바로 생명나무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날마다 내 마음 속에 받아서 먹는 게 생명나무입니다.
황금 알을 낳는 거위에게서 황금 알이 나오는 기쁨, 빌딩에서 월세를 받는 그 기쁨이 변형된 기쁨이고 타락한 기쁨인데, 오리지널 기쁨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매일같이 딱 딱 따먹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변화산에서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 아무런 소원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열매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해주신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계속해서 내가 주체가 되니까 하나님의 주체성이 거부되죠.
하나님의 주체성이 거부되니까 하나님의 주체 자체가 거부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먹으면서 내 주체성이 죽어버려서, 내 생각이 죽고 내 판단이 죽고 내 소원이 죽고 내 계획이 죽고 인생에 대한 염려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나무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따먹게 됩니다. 내 마음으로 모셔 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족하게 되죠. 이 세상에서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이제 백합화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공중의 새에게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체성이 나타납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상의 알들이 하나씩 표현되어 나가는 것이죠. 이 삶은 거저먹는 겁니다. 이게 이 땅에서 사는 에덴의 삶이죠.

그러니까 백합화와 우리의 차이가 분명한 것입니다.
백합화는 하나님의 주체성이 생래적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주체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주체성이 표현되는 일은 꼴찌지만 하나님의 주체와 인격 자체를 우리 마음이 열매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을 따먹고 내 마음이 만족하게 되면, 이제 이 육체가 백합화처럼 공중에 나는 새처럼 하나님의 주체성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 있으면서 생명나무 열매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따먹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해서 직장에서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그 직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백합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직장에서 그 날 그 때에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주체성들이 나의 육체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죠.

마음은 생명나무인 하나님을 따먹어 만족하고, 이 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주체성이 받아들여져 표현되는 백합화가 되는 삶, 바로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창조와 태초 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 삶에서 회복되어, 황금 알을 낳는 거위에게서 황금 알을 받는 기쁨, 빌딩에서 나오는 월세를 받는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은 열매를 날마다 때마다 딱 딱 따먹으면서 살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체성이 백합화처럼 아름답게 여러분을 통해서 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태초에 두 나무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